

목어

생명 패러다임과 21세기

중전의 분야별로 좁게 세분화된 사회역사 사상 등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물질의 입자를 비분할 단위로 생각한 근대과학의 요소 환원주의도 극복되어 고립적 존재는 아무 것도 없다는 불교철학이 현실성을 지니게 되었다. 카오스와 불교사상은 한결같이 모든 대상을 변화(諸行無常)의 기반에서 상호작용(연기) 되먹임(인), 프랙탈(一多多一)의 입장으로 현실적인 관찰(如實知見)한다. 철학, 과학적인 진리가 절대적 아닌,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편리한 가설로 인식됨으로써 '독화살'을 맞고 신봉하는 중생에 주목하는 '구사론(俱舍論)'의 지혜가 요청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1950년 20세기 최고의 지성 B.라셀은 20세기 말까지의 인류의 앞날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1)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전멸, (2)지구 인구가 격감하고 야만의 상태에 되돌아가, (3)모든 전쟁무기를 독점하는 단일정부에 의한 세계통일 등 3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망이 제기된 무렵은 미·소 두 나라 사이가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제조 경쟁이 한창인 때였고, (1)과 (2)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핵전쟁이 발생한 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3)의 내용은 인류가 성공적으로 핵전쟁을 억제하고 세계 정부의 등장을 예상한 내용이다.

비록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미국이 세계 정부를 주도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UN인권위원회의 UN마약억제위원회 회원국에서 탈락되었다. 미국은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국제적으로 채택한 교토선언을 무시해 세계를 실망시켰다.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달과 특히 급속한 정보 그리고 경제의 국제화는 승자인 가진 나라와 패자인 가난한 나라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약자의 발언권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는 시기가.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지구의 벗' 나바로 의장

환경 대담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인류는 수만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도 아직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지식과 과학, 문명과 물질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도 전쟁과 굶주림은 계속되고 지구는 썩어가고 있다. 우리를 이끌었던 세계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종말이 멀지 않은 듯한 이 시대에 자연과 인간을 두루두루 잘 살게 할 수 있는 세계관은 없을까.

남원의 천년고찰 실상사에서 도법스님(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을 세계 3대 국제환경운동체인 '지구의 벗 국제본부(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장 리카르도 나바로(Ricardo Nabarro, 53가 17일 만났다. 엘살바도르 생태협회(CESTA) 의장이자 세계 68개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지구의 벗 대표인 나바로 의장은 1995년 골드만 상을 탄 환경운동가로 지구 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 정부예산감시 활동으로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두 환경 실천가의 대담은 지구환경 보호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식 고양과 역할 증대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두 환경 실천가의 대담은 지구환경 보호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식 고양과 역할 증대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도법스님의 '한 몸 한 생명론'은 지구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나바로 의장의 '가이아이론'과 닮아있었다.

“모든 것이 생명, 지구는 생명체입니다”

나바로 의장=모든 환경운동가들이 그렇듯이 평소에도 동양사상, 특히 불교의 생명사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황에서 기지회전을 마치고 1,300여년이나 된 한국의 고찰 실상사로 바로 달려와보니, 자연과 하나되어 사는 스님들의 모습이 말없는 환경운동이 아닐까 합니다.



나바로 의장 "자연과 하나되어 사는 한국의 스님 말없는 환경운동가"

도법스님=사람들은 흔히 평화와 자유, 공존과 융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깨거리' 논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총체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국가는 국가끼리, 민족은 민족끼리 대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와 나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나바로 의장= 인간이나, 자연이나? 어디에 중심을 뒀어 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이 모든 생명을 다스리게 한

뒤, 생명이 어우러진 모습을 아름답다고 한 것은 인간이 생명체를 죽이고 평화를 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도법스님=사람 중심의 사고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인간 자신에게서 찾아옵니다. 나의 뿌리 곧 정체성은 너에게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와 그 이름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

간의 정체성은 자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의지적인 자연에 대한 통찰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원효의 무애자재(無礙自在)는 존재의 질서를 인정할 실천형태의 하나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생명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자신감과 여유를 가진 삶의 방식입니다.

나바로 의장=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Everything is Life). 지하에서 식물을 뽑아 올 때 대기가 오염되듯이 환경문제는 모든 것이 자연의 균형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가치관이 중요하합니다. 사고 깊질수록 얇은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킨다면 우리의 후손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도법스님= 그런 가치관은 동양에서 '달관(達觀)'의 정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도법스님 "우리는 한 몸 한 생명 깨달음 진리 삼으면 삶의 변화 가져와"

나바로 의장=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삶에 대한 체험과 포기가 아닌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존재의 질서를 인정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뭘든 할 수 있다'는 과대망상이 세계관을 뒤엎리게 합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 환경문제를 발생한다고 봅니다.

나바로 의장= 자기 스스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자연과의 공존도 불가능하겠지요. 모순과 투쟁은 자기 내부

금강산 통일토론회 참가기

장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통일 염원 金剛松처럼 자라나길”

밥기보살의 주석적인 천하의 명산 금강산. 금강산에 깃든 신령한 정기 때 문일까, 흠어진 남북 겨레가 다시 금강산에서 모여 화해의 한마당을 이루니 '타는 목마름'의 대지에 단비가 뿌리기 시작한다. 이렇듯 겨레가 화합하면 하늘도 감로(甘露)를 내려 화답하는 것을... 풍매의 겨레가 역지를 부려 기억 없는 분별고의 나날을 지속하는 것이리라.

6·15 공동선언 1들을 맞아 어렵게 성사된 통일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금강산으로 떠나는 발길은 무거웠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국토는 척박해

지고, 풀리지 않는 남북 대화와 노조들의 파업으로 민심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 시간의 실랑이 끝에 통일연대 식구들 6명이 승선하지 못한 채 쾌속선 선봉호는 14일 오후 늦게서야 금강산을 향해 출발했다. 분단 이후 가장 많은 7백여명의 동포가 한자리에 모여 미사여구뿐인 통일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는 남북 모두가 그래도 6·15 공동선언을 실천 이행할 의지가 있고, 통일을 열망하는 염원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6월 15일 오전 11시, 역사적인 민족 통일대토론회가 진행된 '금강산 러

관' 앞마당은 멀리 집선봉과 장군봉, 비로봉이 병풍처럼 늘어서서 묵묵히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리랑을 배경 음악으로 한 한반도의 형태가 선명한 단일기를 개양할 때, 여러 번 북녘 땅을 오고간 경험임에도 낯익이 시큰하였다. 문제는 행사 내내 자주 눈길이 가는 남쪽 허공의 깃대만 10여 층 짜리의 건축물이었다. 일본인 사업가가 10년 전에 깃대가 사업성이 없다고 버리고 간 것이라는데, 저 층층스런 건물이야말로 바로 오늘 이 겨레들이 소리높여 외치는 '외세'의 상징물이 아닌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김규석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osiamun.com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약사부항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